

디지털 교통환경 구축 시동

익산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총 50억원 투입 신호제어 등 구축, 버스정보제공시스템 확대

익산시가 디지털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교통중심 선도도시로 도약한다. 특히 이번 디지털 교통환경 구축 사업은 정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대거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시는 교통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설치를 위한 국비를 대거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익산대로와 무양로, 선화로, 군익로, 중앙로, 번영로, 은기길 등 37.1KM를 대상

으로 돌발상황 관리에 필요한 교차로 감시카메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실시간 신호DB를 적용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은 30곳, 긴급차량 교차로 통과 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우선신호시스템 10곳, 좌회전 차량을 감지해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신호시스템 7곳 등 각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이어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을 확대하기 위해 30개 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기(BIT)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영상분석 기반 스마트교차로로 신호 정체원인을 분석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

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교차로 교통사고발생, 우회정보 등 실시간 교통상황을 제공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했다. 121개 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디지털 교통환경 구축은 '교통중심 도시 익산'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통정보제공시스템과 첨단 신호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와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은 최근 군산지역 전통 상설시장 협업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군산대, 지역 주요 상설시장에 물품 지원

상인 의견 수용한 방수 앞치마, 생분해성 비닐봉지 등 전달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와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김영철)은 최근 군산지역 전통 상설시장 협업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은 군산대학교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역 조건을 준수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전통시장에서는 군산시 상인연합회장 겸 명산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공설시장 강영자 회장, 주공시장 고형근 회장, 신영시장 송기섭 회장, 군산시 전통시장 활성화계 남궁영길 계장이 참석하였고, 군산대학교에서는 광병선 총장, 최광득 교무처장, 양현호 기획처장,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겸 LINC+사업단장, 이호 사

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물품들은 시장상인 필요 물품인 방수 앞치마, 생분해성 비닐봉지 등이다.

이 품목은 지난해 12월 신영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작·배포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아, 명산전통시장, 공설시장, 주공시장 등 군산지역 주요 전통 상설시장으로 확대하는 협업 프로그램에서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군산대학교에서는 군산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및 상권 활성화사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고, 지역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땀글달고 쿠폰받고 주문하러 가자!

군산시 배달의명수, 북 마니 쿠폰 3가지 이벤트 진행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새해를 맞아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북 마니 쿠폰 3가지 이벤트'를 2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북방오' '소' 상품인과 함께하는 땀글 이벤트 ▲2021년도 내는 배명만 쓴다 ▲모두드림 할인 쿠폰 이벤트 등 총 3가지 이벤트가 기간별로 진행된다.

먼저 '땀글 이벤트'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땀글을 남겨준 소비자 1,000명을

추첨을 통해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2021년도 내는 배명만 쓴다"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 기간 내에 배달의 명수로 금액에 상관없이 3번 이상 주문 시(단 1인 1일 1번만 가능) 선착순 1,000명에게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마지막으로 '모두드림 할인쿠폰'은 2월 15일부터 배달 주문 시 즉시할인되는 2,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2,500명에게 지급한다.

이외에도 배달의 명수 할인혜택 코

너에서는 500여개의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제공, 무료배송, 땀글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이종혁 과장은 "배달의 명수 출시 이후 함께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배달의 명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마니 쿠폰 이벤트' 할인쿠폰은 앱 가입자에 한해 지급이 되며, 배달의 명수 앱 배너나 페이스북, 고객센터(070-8878-6411)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더 큰 사명감으로 시민 안전 책임지겠다"

익산소방서, 시험·심사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22일 오전 서장실에서 시험 및 심사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사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간소화하게 진행됐다.

이번 승진자 중 시험 승진자는 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으로

5명이며, 심사 승진 임용자는 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으로 총 11명의 승진자에게는 승진 임용장과 계급장이 수여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지난 한 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서도 현장활동·행정업무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며, 익산시 안전 수호에 기여

해 많은 대원들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수여식 뒤에는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 축하 모임 자제, 풍위순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과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진급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한 계급 올라간 만큼 소방정신인 명예·신뢰·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익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규임주자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가구

최대 690만원 무이자·6년까지 지원 가능

군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 또는 군산시(희망투어파트)에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신규임주자로 확정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대상 가구는 임대보증금 중 계

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중 최대 69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3)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 5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유재구 의장은 "신축년 첫 임시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구 의장은 "신축년 첫 임시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충영 익산시의원

시내 자전거도로 개선 제안



지난 22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의원(익산나산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시

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등이 인기를 끌면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익산시 자전거도로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작년 비대면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용안생태습지공원, 미륵사지 등 우리시 관광지원과 급강·만경강 자전거길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급강·만경강 자전거길과 연결되는 시내구간 자전거도로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되길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